

정원 '원점 검토'...전남 의대 신설 어쩌나

내년 개교 목표 '정원 200명 확보' 구상 차질 우려
도 "증원 아닌 신설 뚫...정부 약속 이행해야" 촉구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원점 검토 방침 속에 차질을 빚는 것이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 이름으로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오는 14일 교육

부 산하 대학 설립·개편 심사위원회와 대학 통합 사전 협의를 진행, 통합 신청서 내용을 보완·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해 11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대 설립에 필요한 예비 인증 신청서도 제출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오는 3월 교육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4월 대학 통합 승인이

지받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또한 전남권 의대 신설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도 장광열 의대유치실립추진단장, 목포대·순천대 기획부처장 등은 13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직무대리와 면담을 갖고 전남권 통합의대 설립 추진서 제출 경위, 대학 통합 과정 등을 설명한 뒤 전남권의 의대 정원 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교육부에 신설된 의대교육지원관은 의대 관련 교육·정원 등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처럼 전남도와 양 대학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전남권 의대 신설 문제는 탄핵 정국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하는 의한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이 의대 정원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尹 체포·구속하라” 내란 수괴(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총회 기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즉각적인 체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영근기자

“메이데이” 후 블랙박스 ‘먹통’...원인 규명 난항

둔덕 충돌 4분 전부터 FDR·CVR 저장 중단...‘전원 셧다운’ 무력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비행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모두 충돌 전 4분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고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서 FDR과 CVR을 분석한 결과, 여객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약 4분 전부터 2개 장치 모두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8시 30분께 조종사가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외친 이후부터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19)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에 충돌한 오전 9시 3분께까지 기록이 없다는 의미다. 단, CVR에 기장의 ‘메이데이’가 기록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저장 중단된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객기 ‘전원 셧다운’(공급 중단)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FDR과 CVR 등 블랙박스는 전원이 끊기면 기록 저장도 멈춘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 배터리가 참사 여객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사고 조사는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社 告

제1기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모집

광양권역 CEO·임원, 각 단체 관리자 등 대상
4월 개강...인적 네트워크·다양한 원우회 활동

광주매일신문이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제1기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함께 할 원우를 모집한다.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남 동부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체 CEO와 임직원, 각 단체의 관리자 및 열정적인 지식 탐구를 지향하는 사업가와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학습·교류의 장입니다. 문달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교수,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소비자학과 박사 등 각 분야 최고 강사진의 열정적인 강의와 다양한 기획 특강 등을 통해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원우회 차원에서 골프와 트레킹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광주매일신문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기 광양만권 리더스 아카데미 과정에서 고품격 강의와 소중한 만남을 통해 재미와 만족을 극대화 하십시오.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2025년 4월 개강-10월 종강(연 12회 개강)
- 지원자격: 기업 경영자·관리자,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 강의시간: 격주 수요일 오후 7-9시(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광양라흐호텔
- 모집기간: 2025년 3월 말까지
-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4)

광주매일신문

유가족 긴급생계비 300만원 지급

도민의 반영 모금 기간 중 최초 지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 최초로 모금 기간 중 지원하게 됐다. /김재정기자

전남도는 12일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 179명에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성금으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비 지급은 여객기 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전국 17개 지회에서 진행되는 특별모금 중 10일까지 모금된 성금으로 이뤄졌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은 모금 종료 후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전남도가 이번 사고로 당사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제12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모집인원 00명 내외

교육기간 2025년 3월 25일(화) ~ 2025년 12월 종강(연 16회)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강의장소 휴리데이 인 광주호텔

진행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5년 3월 14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9)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 주요강사진 (예정)

수강생 모집요강